

인민은 백두산을 노래한다

평양출판사

인민은 백두산을 노래한다

주체111(2022). 9.

화첩을 내면서

언제부터였던가, 우리 인민이 민족의 존엄과 영광의 상징으로 백두산을 노래하기 시작한것은!

삼천리 이 강토가 일제의 쇠사슬에 묶이여 치욕과 고통속에 몸부림치던 그때 백두산에 장군별 솟았다고, 백두산장수 구름타고 내려와 일제를 쳐부신다고, 그 장수는 조선독립대장 **김일성**장군이시라며 우리 인민은 크나큰 민족적자부와 환희에 넘쳐 백두산의 노래, 김장군의 노래를 목메여 불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의 다함없는 기대와 념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20성상 백두의 험산준령을 넘고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정녕 백두의 천고밀림과 줄기줄기마다엔 수령님의 성스러운 발자욱과 체취가 그대로 어리여 있어 백두산은 **김일성**장군의 산이라고 인민은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백두산의 천연수림속에는 항일의 투사들이 감격에 목메여 얼싸안으며 새겨놓은 불멸의 글발들이 오늘도 찬연히 빛발치고있다.

《아 조선아 백두성탄생을 알린다》, 《백두산에 **김일성**대장 계승인 탄생》…

백두밀림의 소박한 귀틀집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준엄한 시련속에서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장군님께서는 혁명승리를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일찌기 학생소년시절에 벌써 백두산에로의 첫 답사길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이 깃든 백두산지구를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꾸려주시였다.

언제나 백두산을 마음속에 새겨안으시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온갖 도전과 시련을 맞받아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인민은 노래하였다. 장군님은 백두산 높이 솟아 기다린 은인, 천지물 흘러내려 맞이한 은인이시라고, 백두산은 그 이름도 빛나는 **김정일**장군의 산이라고 긍지높이 노래하였다.

백두산은 오늘 또 한분의 천출위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그 이름, 그 존엄 누리만방에 떨치고있다.

역풍이 불어도 순풍이 불어도 오직 한길 백두에서 뻗어내린 주체의 길, 사회주의한길로 변함없이 곧바로 갈 신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이 나라의 천만아들딸들이 백두의 행군길을 영원히 이어가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칼바람 휘몰아치는 혹한에 심장을 더웁히시며, 만년장설우에 군마의 자욱을 힘있게 찍으시며 우리 원수님 이어가신 백두산의 행군길로 인민은 따라섰다.

거센 파도마냥 줄기차게 흐르는 백두산행군대오에 노래가 울린다. 걸어온 천만리를 이어 억만리를 다시 간대도 그 길에 더 간고한 시련의 진펄, 험난한 불바다를 헤쳐야 한대도 기적과 행운이 소리쳐 마주 오는 백두의 행군길, 승리와 영광의 길로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가리라는 신념의 노래가 높이 울려퍼진다.

그렇다. 우리 인민은 **김일성**장군의 산, **김정일**장군의 산, **김정은**장군의 산으로 그 이름 빛나는 백두산의 노래를 더 높이 부르며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고야말것이다.

(편 집 부)



조종의 산 백두산은 웨친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중에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정에 오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



삼천만이여!
오늘은 나도 말하련다!
《백호》의 소리없는 웃음에도
격파 솟아 구름을 삼킨다는
천지의 푸른 물줄기로
이 땅을 파몰아치던 살풍에
마르고 탄 한가슴을 추기고
천년 이끼오른 바위를 벼루돌 삼아
곰팽이 어렸던 이 붓끝을
육박의 창끝인듯 고루며
이 땅의 이름없는 시인도
해방의 오늘 말하련다!

（장편서사시 《백두산》 중에서）



장 군 별

별이 솟네 별이 솟네 장군별이 솟네
백두산에 높이 솟네 장군별이 솟네
아 찬란한 저 별빛 우러러보면
희망이 샘솟아 가슴은 설레네 가슴 설레네

별이 빛나네 별이 빛나네 장군별이 비치네
깊고깊은 밀림에도 밝은 빛을 뿌리네
아 찬란한 저 별빛 비쳐가는 곳
희망은 넘치고 행복은 꽃피네 행복 꽃피네

(1930년대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던것을 1970년대초 개작한 가요이다.)

광 명 가

부산자대중아 탄식을 말아라
부귀와 빈천은 바뀌여진다
북천의 장군별 채광 뿌리니
어둡던 강산에 동이 터온다

가련한 인생을 한탄말아라
새날이 밝으면 복락하리라
2천만동포야 장군별따라
빼앗긴 내 나라 광복하리라

일어나 싸우자 조선민족아
간악한 일제놈 쳐물리치고
삼천리강산에 독립기 날릴제
5천년력사국 자랑 떨치자

(1940년대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던 가요이다.)



우리 장군 만세

금수강산 삼천리에 검은구름 뒤덮이고
이 강산 넓은 땅이 피눈물에 날이 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더니
압박과 착취로 살길없는 세상에
하늘에서 명장 한분 구름 타고 내려오셔
백두산 높은 봉에 거연히 올라서시더니
한손으로 무너지는 하늘을 떠받드시고
한손에는 번개치는 총칼을 드셨네

한번 치니 번개 일어 온 세상 뒤흔들고
두번 치니 일본군대 무리로 쓰러지네
오호라 우리 겨레 살 세상 만났고나
오호라 우리 장군 **김일성**장군 만세! 만세!
2천만 백의동포 두손을 마주잡고
나라를 구원할이를 목마르게 기다렸더니
하늘에서 내려오셨나 땅에서 솟아나셨나
우리 장군 **김일성**장군 만세! 만세! 만세!

（동녕현성전투후 인민들이 부르던 민요이다.）



항일의 피어린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



백두산장수

백두산은 조선명산
산은 높고 거룩하기에
백두라 함
백두의 중심에
조선독립대장 무적장수 있나니
바로 그 장수 누구이신가
그이는 조선명장 김대장이시다
김대장은 조선독립대장이시며
만국의 명장이시다
김대장은 일본군을 전멸하고
조선반도에 태양빛 비쳐주시네
김장군의 유명한 전법에
일본군벌 쇠물처럼 녹아난다
일본군은 김대장이란
말만 들어도 쥐구멍 찾는다
그러니 조선겨레에게 필심을 준다
김장군은 천년만년
승승장구하시여 조선독립 쟁취하리라

(항일무장투쟁시기 인민들속에서 불리우던 가요)



보천보전투지휘처



위대한 수령님을 보위하기 위하여 경위중대가 기관총을 배치하였던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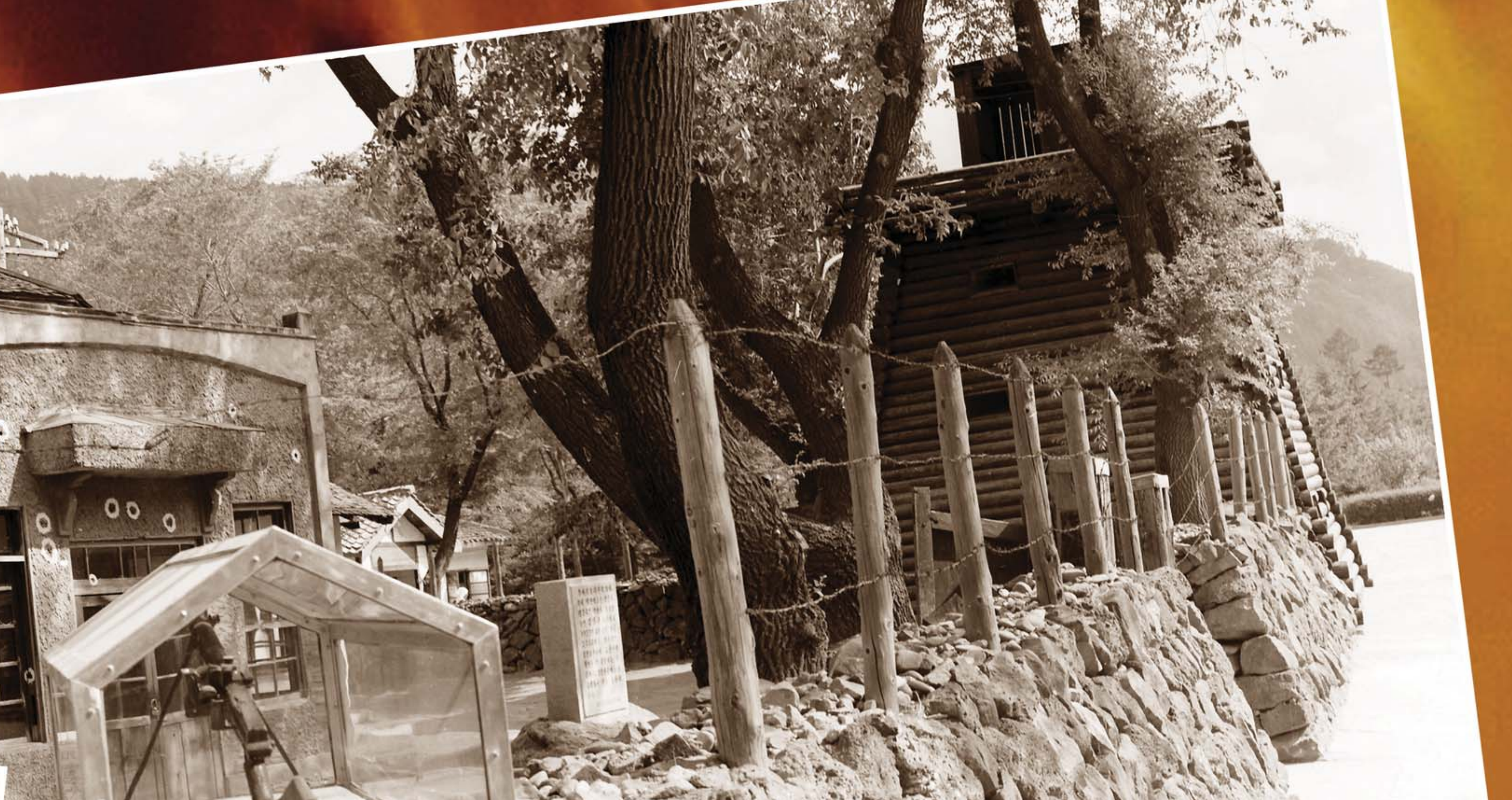
경찰관주재소습격을 위하여 배치하였던 기관총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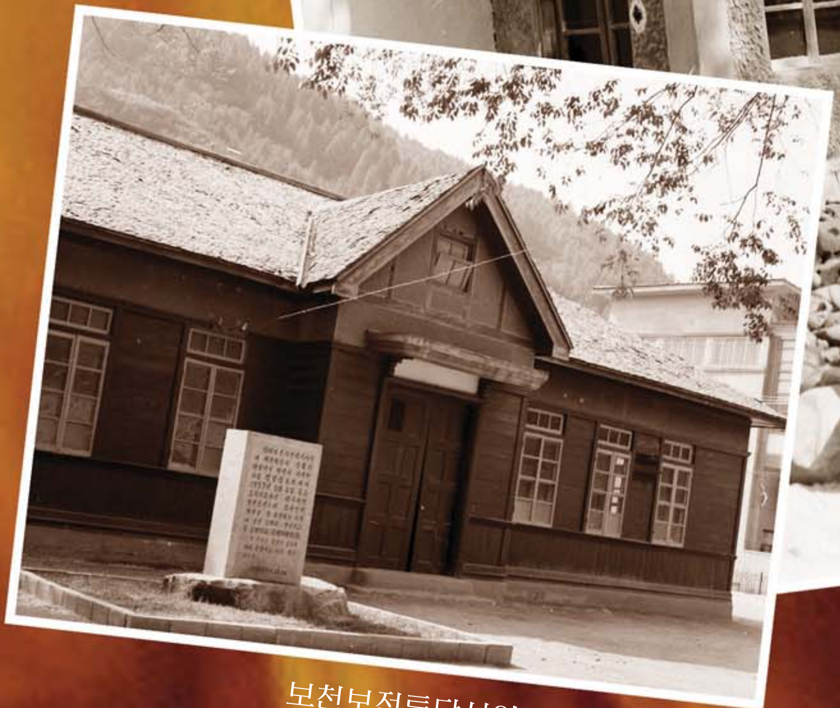


보천보의 밤하늘에 조국진군의 첫 총성을 울리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적은 반항도 못하고
죽고 도망치고
류치장지붕에선
삼단같은 불길이 일어난다
이곳저곳 관사에서도
왜놈들 집에서도
반역자들 집에서도
불길이 일어난다
캄캄한 하늘을 산산이 윽물어찢어
쪼박쪼박 태워버리며
불길이 일더니
만세소리 터진다

(장편서사시 《백두산》 중에서)





보천보전투당시의 일제의 면사무소



보천보전투당시의 일제의 경찰관 주재소(우)와 소방회관(옆)

《동포들이여!
저 불길을 보느냐?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의 정신은 살았다!
조선의 심장도 살았다!
불을 지르라!
원쑤의 머리에 불을 지르라!》

(장편서사시 《백두산》 중에서)



보천보의 밤하늘에 조국해방의 홰불을 높이 올리시고 조선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조선인민혁명군의 습격으로 불타버린 보천보의 면사무소



保田事件に對する感想

惠山警察署長

…가림주재소에서 걸어온 긴급전화를 받은 순간 나는 예상치 않았던 너무도 크고 중대한 돌발사건에 마치 뒤통수를 《꽝》 얻어맞은것같이 온몸이 굳어졌다. 주재소는 그앞에다 건 기관총 2정의 맹렬한 사격을 받았다. 수류탄, 다이나마이트를 사용한듯, 사무실, 휴게실 전면유리창은 한장 남지 않고 전부 파괴되였으며 문, 벽, 사무실, 휴게실의 내부벽, 천정, 직원숙사 등은 탄알을 맞아 마치 벌둥지와 같이 구멍이 숭숭 뚫어져 그 참상은 차마 눈을 뜨고 볼수 없었다. 나는 직원가족과 함께 흥분하여 정황을 보고하려 했으나 너무도 당황실색했던 그들의 말을 듣고는 전후관계를 알수 없었다. 너무도 뜻밖의 돌발사건이여서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였다. …

…시시각각 아군의 불리한 정황은 중대해갔다. 육체와 정신을 모조리 태워버리려는듯,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세상이 있다면 바로 그 암흑속에서 허덕이는 마귀의 심정마냥 비수와 통분, 고민과 초조는 도저히 이루 다 표현할수가 없었다.

…슬픔을 금할수가 없는 심정을 억누르며 주재소와 직원순사실의 창문을 모조리 뜯어 림시 들것을 만들어 현장에 보냈으며 직원가족들의 이불과 의복들을 모두 거두어 이에 충당하였다.

…생각하여보면 보천보사건은 천일에 걸쳐 공들여 베여놓은 새초를 눈깜박할 사이에 재더미로 만든감이였다. …

아-6월 5일! 평생 잊을수 없는 슬픈 기념일로 되였다.

《보전사건에 대한 감상》 혜산경찰서장



금란지계전

…

동이 튼다 강토는 우리의것
백두산에 해뜨고
계룡산에 닭소리 높다

백의동포 조국광복 위하여
백자령* 받들고
왜놈의 통치
창으로 깨자

정룡령은 우리의
김일성회장
김대장은 민족의 영재
하늘의 태양
복되도다 우리 조선족
오매에 그리던 당당한 기상
영세불멸이로다

*백자령;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말함
(1930년대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우던 가요이다.)



조선청년들, 속히 달려나와서
항일전에 힘있게 참가하자



일어나라, 단결하라, 전세계로력대중들아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청봉숙영지에서 쓰신 구호문헌

> 청봉숙영지의 구호문헌들





무산지구에로 행군하시던 길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함께 삼지연못가에 이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

그립던 내 조국에 붉게 핀 진달래야
찬바람 눈속에도 억세게 피였구나
짓밟힌 강산에 새봄을 주려고
장군님뒤를 따라 네 품에 왔노라

한송이 꽃에도 한줌의 흙에도
전우들의 피가 스민 어머니품이라네
못잊을 이 강산을 한품에 안아보며
해방된 조국의 그날을 그려보네

(가요 《조국의 진달래》 중에서)





진달래 붉게 펴서 홍단별이냐
철쭉꽃이 붉게 펴 홍단별이냐
김일성장군님이 왜놈들을 쳐부신
불멸의 뜻이 어려 대홍단일세
노래하세 혁명의 전적지
천만년을 길이길이
천만년을 길이길이
노래불러 자랑하세

단풍도 붉게 타서 홍단별이냐
바위들도 붉어서 홍단별이냐
김일성장군님이 올리신 홰불
삼천리를 붉게 비쳐 대홍단일세
노래하세 혁명의 전적지
천만년을 길이길이
천만년을 길이길이
노래불러 자랑하세

(가요 《노래하세 대홍단》 중에서)

<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밀림이 설레인다 파도쳐 설레인다
백두의 밀림이 파도쳐 설레인다
김일성장군님의 그 이야기 전하며
밤이나 낮이나 끝없이 설레인다

장군님 거느리신 빨찌산이 헤쳐간
고난의 눈보라를 못잊어 설레인다
사령부 지켜싸운 그날의 총소리
밀림에 차고넘쳐 소리높이 설레인다

(가요 《밀림이 설레인다》 중에서)





…

아득한 태고로부터
이 나라 흥상의 나날을 날날이 겹어
천산성악아, 백두산아!
오늘은 이 땅에 날이 밝아
오늘은 너의 천지에 채운이 서리우고
오늘은 너의 머리우에
창창한 대공이 열렸거니
너 백두야! 조선의 산아 말하라—
어떻게 떨어졌던 태양이
이 나라에 솟았느냐?
떨어졌던 태양이 다시 솟는 그때
네 누구를 맞이했느냐?

(장편서사시 《백두산》 중에서)

장엄한 네 모습은 장군님모습이고
슬기로운 네 기상은 조선의 넋이여라
백두산 백두산 혁명의 산아
항일의 혈전만리 네 품에 어렸구나
백두산 백두산 장군님산아
온 세상 굽어보며 영원히 빛나라

(가요 《백두산아 길이 빛나라》 중에서)





력사적인 조국개선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



백두산줄기 내려 금수강산 삼천리
장군님 높이 모신 환호성 울려가네
태양의 위업 빛내신 인민의 령도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 중에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정에 오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집이여, 밀영의 귀틀집이여
너는 백두령봉의 천만산악으로
울바자를 두르고
성벽을 쌓아
눈바람 불바람을 다 막아내고
미래의 태양을 안아올린 영광의 집

정녕 너는 끊어진 조선의 혈통을 이으려
일찌기 만경대를 떠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의 층암절벽을 깎아내고
백두의 천고밀림을 찍어내여
폭풍의 언덕에 일떠세운 혁명의 집이어니
…

그렇다, 황금을 빚어 지붕을 얹고
진주보석을 다듬어 뜨락에 깔은들
어찌 너처럼 보배로울수 있고
너처럼 찬란히 누리에 광채를 뿌릴수 있으랴
아, 조선의 고향집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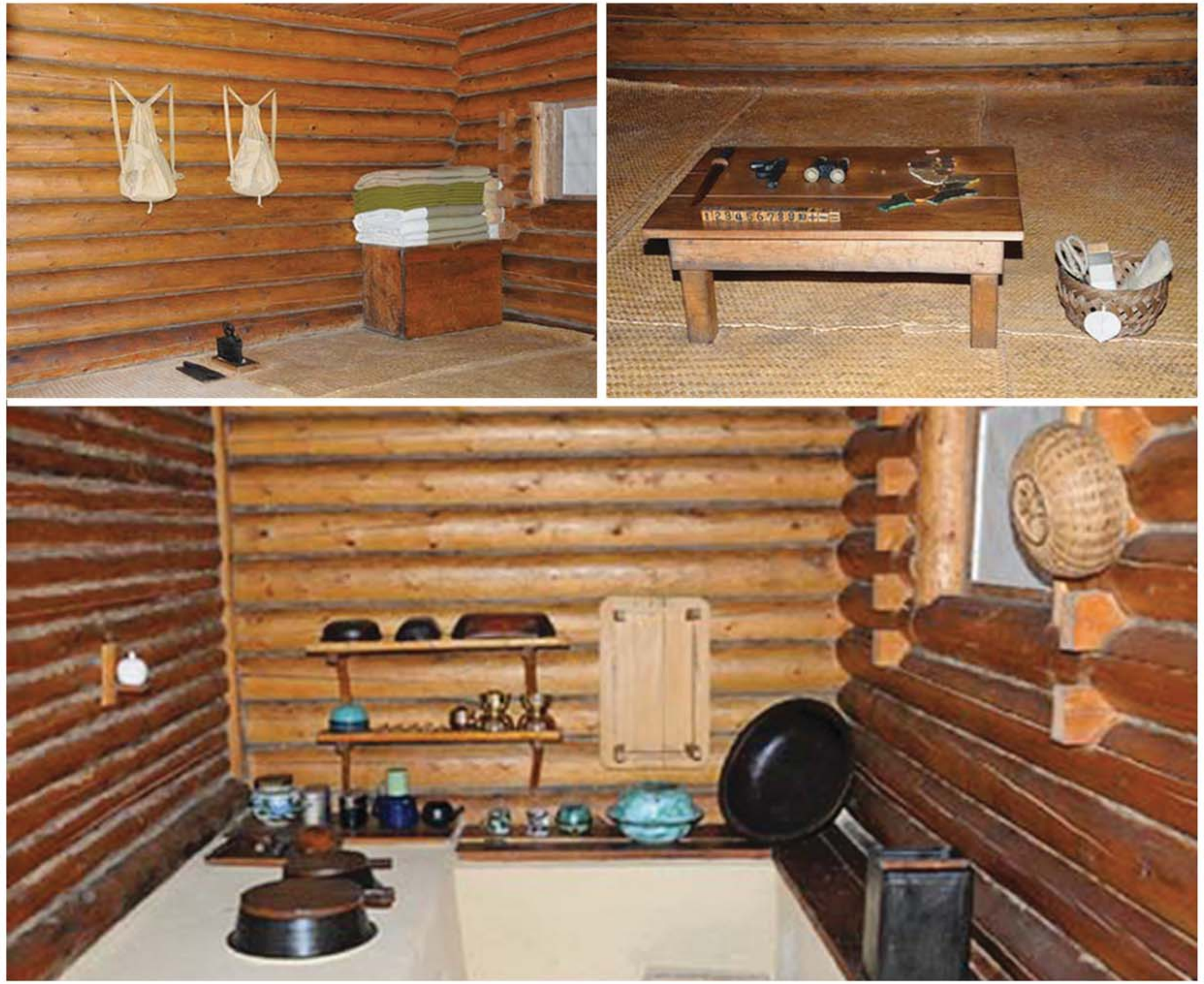
(시 《고향집》 중에서)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



어린시절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백두산밀영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유물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대원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

조용히 걸으시라 그리고 들으시라
그러면 들려오리 그대들 귀전에
항일의 선렬들이 감격에 목메여
얼싸안으며 웨치던 그 소리가
아 조선아 백두광명성이 솟았다
아 조선아 백두성 솟았다

(가요 《들으시라 그날의 감격을》 중에서)



백두산에 김일성대장
계승인 탄생



백두광명성은 조선독립광명성
광복조선광명성
세계의 광명성



아 조선아 백두성탄생을 알린다



그 언제나 보고싶어 찾는 곳
백두밀영고향집을
소중히도 품에 안고 서있는
영광넘친 봉우리여
아 정일봉 빛나라 그 이름
향도의 별빛 어려있어
너의 모습 장엄하여라

(가요 《빛나라 정일봉》 중에서)



뜨락에 피였네 눈꽃이
숲에도 피였네 눈꽃이
소백수물가에도 흰눈꽃 피였네
고향집을 꽃속에 모시고싶어
송이송이 눈송이도 꽃송이되였네
우리의 맘 담아서

봄에는 고운 꽃 펴나고
가을엔 단풍잎 타더니
정이월 설경에는 눈꽃이 피였네
고향집에 사시절 꽃이 피라고
저 하늘도 눈을 내려 눈꽃을 피웠네
우리의 맘 담아서

(가요 《눈꽃이 핀 고향집》 중에서)

< 설경을 펼친 소백수



사시장철 흰눈 이고 높이 솟은 백두산
너는 장엄하여라 아름다워라
주체의 려명이 찬란히 밝아온 곳
백두산 백두산 혁명의 고향

어디 가나 항일의 뜻 어려있는 백두산
너는 숭엄하여라 자랑넘쳐라
향도의 밝은 별 여기서 솟았네
백두산 백두산 혁명의 고향

(가요 《백두산은 혁명의 고향》 중에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대오를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혁명전적지 답사생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네번째 줄 왼쪽으로부터 다섯번째에 계시는분)

누가 백두산마루에 오르는
대문을 열었던가
누가 이 산마루에 기발을 꽂았던가

그 누구도 없었다
백두의 담력 신비의 예지를 지니신
백두산의 아들 우리 장군님만이
혁명의 성지 백두산에로
첫 답사행군길 열어놓으셨거니
백두의 존엄을 건드리는자들에게
무자비한 타격, 가차없는 징벌로
무서운 철추를 내리시며

(서사시 《백두산을 닮으라》 중에서)



> 선오산에서 본 백두산

오 정가로운 무포의 낚시터여
여기서 내 다시 우러러뵈올듯싶구나
강물우에 낚시대 드리우시고
생각의 바다를 펼치시던
친애하는 그이의 영상

옥돌을 씻으며 맑은 물 달리는
이 기슭 어디에
걸음걸음 생각깊이 찍어가시던
그이의 자욱을 간직했느냐

무성한 아지를 펼치고
물가에 나앉은 하얀 봇나무
너는 오늘도
그이께서 원대한 구상을 하시던
뜻깊은 그날의 감격을 새겨가느냐

(시 《무포의 하늘아래서》 중에서)



무포낚시터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할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삼지연대기념비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아 위대하신 그이
멀리 흘러간 세월의
그 30년대를
이 기슭에 대로천혁명박물관으로 펼쳐주신
영광의 그날로부터

삼지연 삼지연!
너는 억년 마를줄 모르는
혁명의 젖줄기되여
찾아오는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에도
출렁이며 설레이며
저 도도히 굽이치는 항일의 대오와 함께
영원히 하나의 피줄로 뛰게 하였어라

(시 《삼지연》 중에서)

<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지도밑에 세워진 삼지연대기념비



친애하는 그이께선 설한풍속에
외투자락 세차게 퍼덕이시며
심중에 뜨겁게 새기고계시여라
(모진 광풍도 시련도
맞받아나가리라!
맞받아나가는것—
그것은 항일의 혁명정신!
백두의 혁명정신!
오직 맞받아나갈 때
승리는 영원하리니
영원히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내 조선을 이끌고
공산주의상상봉에 오르리라!)

(서사시 《백두의 눈보라》 중에서)

천고밀림 흰눈우에 첫 자욱 새기시며
빨찌산일가의 뜻을 이은 장군님
백두산 김대장의 붉은기 날리시는
우리의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항일전의 그 나날을 장군님 추억할 때
우리의 마음에도 밀림의 눈이 내렸네
사회주의 지켜서신 오늘의 김대장
우리의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적진에 번개치며
위대한 백두전법 전선길에 빛내시네
조국위해 한평생 공격전에 계시는
우리의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가요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어버이수령님 우러러
내 만일 한점의 티라도 낀다면
어디서나 다시 백두산에 오르리
내 만일 꽃으로 졌다 시들면
여기 올라 다시 필 자리 찾으리

아, 내 한생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
삶의 순간마다
언제나 그 언제나 백두산에 오르리

(시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 중에서)



조선의 영원한 행군길



칼바람 몰아치는 백두산정에 거연히 서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장군은 눈부신 세기의 태양
장군은 찬란한 승리의 기치
백두산대국 삼천리 밝은 미래 펼친다
그 이름도 위대한 김정은장군

(혁명송가 《김정은장군찬가》 중에서)



물어보자 백두여!
너 가슴헤쳐 말하라!
몸소 일행의 앞장에서
호곡하는 눈바람을 맞받아 헤치며
만년장설이 깔린 백두산으로
힘있게 오르시는 원수님모습 우러러
우리 가슴 뭉클 젖어오던 생각은
무엇이였던가
……
사상도 뜻도 백두산
기상과 담력도 백두산
모든것을 백두산을 닮아
사람마다 칭송하여마지 않는
백두산의 장군
백두산의 주인
오늘의 김대장 김정은장군!

(서사시 《백두산의 칼바람》 중에서)



세대와 세기를 이어오는
준엄하고도 성스러운 장도에서
단 한번 우리 혁명은
백두산을 내린적 없었으니
멀리 전진할수록
높이 올라설수록
떠나온 그곳으로 더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조선혁명의 이 류례없는 발걸음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있어
온 세상 천금보화 다 주어도 못바꿀
정신력의 대광맥이 거기에 있어
아, 우리의 김정은동지
다시 또다시 진두에서 단행하신
백두산군마행군길이여

(시 《영원한 조선의 행군길》 중에서)

그날의 거룩한 영상
백두의 거울되여 소중히 새겨안은
소백수물결아 말해다오
엄동설한 그 강추위에 군화채로 성큼
차거운 소백수얼음물에 들어서신 원수님
북받치는 열애에 잠겨 하시던 말씀
어쩐지 물이 차지 않다고
뜨겁게만 느껴진다고…

…

혁명앞에 인민앞에
그리도 순결하고 충실하신분
그처럼 자신을 깡그리 잊으시는분
시련의 만리장설 다 녹이실
활화산같은 그 심장의 열기에 젖어
소백수 너도 뜨거운 불물로 굽이쳐 흘렀나니

(시 《영원한 조선의 행군길》 중에서)





속까지 푹 젖어든 군화를 신으신채
무릎이 푹푹 빠져드는 생눈길 헤치시며
백두산, 백두산으로 향하시는 그 걸음걸음에
백배, 천배로 굳혀안으시는 결심
천리길 끝난 곳에 만리길 또 있어라
대를 이어서라도 가야 할 이 한길
영원히 가리라 백두의 행군길을

(시 《영원한 조선의 행군길》 중에서)

정녕
백두의 칼바람속에서만
그 불길의 뜨거움을 알수 있고
백두의 붉은 기폭아래서만
그 불길의 거세참을 알수 있는
빨찌산모닥불!

내 언제나
심장의 불로 안고 가리라
백두의 산악같이 억세고
백두의 붉은기처럼 열렬한
오, 빨찌산모닥불
혁명의 불이여!

(시 《빨찌산모닥불》 중에서)





만리설원을 주름잡는 군마
백설광야우에 흰빛을 더해주는 그 자태
천지호반에서 목을 추기고
저기 저 남해끝까지 거침없이 내달릴듯
력사의 고삐 틀어쥐고 천하를 평정할
우리 장군 고이 모시려
하늘에서 내린 전설의 룡마런듯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신적뿌리가 내린 길
빨찌산의 아들 우리 장군님
푸른 젊음으로 열어가신 첫 백두산답사길로
혁명의 피줄기를 꿋꿋이 이어주신 길
추억깊은 그 길로 백마몰아 달리실제
폭풍치는 그이 사색속에
우리 혁명은 내달렸다 질풍쳐 진군했다

(시 《영원한 조선의 행군길》 중에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으로 향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백두산은 조선혁명의 발원지이고 승리의 상징이며 우리 인민의 마음의 기둥입니다. 흰눈덮인 백두산에 오르니 몸과 마음에 혁명열, 투쟁열이 흘러들고 새로운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김 정 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정에 오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우리 가리라
걸어온 천만리 이어 억만리를 다시 간대도
그 길에 더 간고한 시련의 진펄
험난한 불바다를 헤쳐야 한대도
기적과 행운이 소리쳐 마주 오는 이 한길로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가리라

(시 《영원한 조선의 행군길》 중에서)



봄날에도 가리라 겨울에도 가리라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에
폭풍에도 굽힘없는 의지를 주고
신념을 벼려주는 혁명의 전구
가리라 가리라 백두산으로 가리라
우리를 부르는 백두산으로 가리라

(가요 《가리라 백두산으로》 중에서)

인민은 백두산을 노래한다

편　　집	김화명
편　　성	조국성
사　　진	김화명, 김남철, 로남철, 박주성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 쇄 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1(2022)년 9월 15일
발　　행	주체111(2022)년 9월 16일

ㄱ-1551ㄷ

사시장철 흰눈이고 높이 솟은 백두산
너는 장엄하여라 아름다워라
주체의 려명이 찬란히 밝아온 곳
백두산 백두산 혁명의 고향

어디 가나 항일의 뜻 어려있는 백두산
너는 숭엄하여라 자랑넘쳐라
향도의 밝은 별 여기서 솟았네
백두산 백두산 혁명의 고향

인민들이 한맘으로 노래하는 백두산
너는 영광넘쳐라 높이 빛나라
주체의 해와 별 누리를 밝히니
백두산 백두산 혁명의 고향